

Q 10:21-24; 11:2-4, 9-13에 나타난 기도

- *The Critical Text of Q Unformatted* 와
*The Critical Edition of Q*의 본문을 중심으로 -

소기천*

1. 들어가는 말

초기 교회에서 기도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항상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즉 기도는 제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본 소고는 기도의 제의적인 측면을 통해서 Q에 나타난 기도의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Q에서 기도와 관련된 구절은 세 번 나온다(Q 10:21-24; 11:2-4, 9-13). 본래 Q 본문에서 기도 구절은 한꺼번에 모아져 있었다. 그런데 Q 10:21-24; 11:2-4, 9-13이 누가복음에 편집되면서 Q의 본래 자리를 잃어버렸다. 마태복음에서도 Q 본문은 11:25-27, 13:16-17, 6:7-13, 7:7-11에 산산이 흩어져 있다. 따라서 Q 10:21-24; 11:2-4, 9-13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집 작업이 가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본 소고는 Q의 초기 확정본문인 *The Critical Text of Q Unformatted* 와 후기 확정본문인 *The Critical Edition of Q*를 살펴보고, 양자 본문의 비교와 사역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위치와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Q의 본래 독특한 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Q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Q의 기도신학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신학이 Q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Q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자리를 밝히고자 한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2.Q 본문의 비교와 사역과 구조

2.1. *The Critical Text of Q Unformatted* 와 *The Critical Edition of Q* 의 본문 비교

원래 Q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복원된 Q 본문인 *The Critical Text of Q Unformatted (CTQU)*는 소기천의 『예수말씀 전승궤도』의 제2부 9장에(222-252쪽) 실린 Q 본문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150년 동안 신약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제 Q 프로젝트(International Q Project=IQP)가 1994년 시카고에서 모였던 세계성서학회(SBL)의 연례회의를 끝으로 학문적으로 복원을 완료하였던 문서이다.¹⁾ 그리고 *The Critical Edition of Q (CEQ)*는 1993년 6월에 독일의 밤베르크에서 그 동안 독자적으로 Q를 복원해 왔던 유럽의 학자들이 IQP에 합류함으로써 CTQU를 토대로 해서,²⁾ 1994년 이후에 IQP가 계속하여 CTQU를 개정하여 최종적으로 복원하여 2002년에 출판하였던 “Q의 대조 연구서”³⁾이다. 여기에는 Q 본문이 본문비평 장치에 의해 마련된 본문

1)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궤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07. 그리스어로 복원된 Q 본문에 관해서는 같은 책 221-252를 보라. 그리스어 Q 본문의 한글 번역에 관해서 국제 Q 프로젝트(IQP)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필자가 번역을 하였다. 자세한 것은 소기천, “예수말씀 복음서 Q: 서론, 본문 번역, 해설,” 『성경원문연구』 제5호(1999년 8월호): 130-167을 보라. Q를 마태와 누가의 공통자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가가 Q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M. Lebahn and A. Schmidt (eds.), *Jesus, Mark and Q: The Teachings of Jesus and Its Earliest Records*. JSNTSS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에 실려 있지만, 많은 복음서 연구학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계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Q 연구의 주요 학자들은 James M. Robinson, John S. Kloppenborg, Paul Hoffmann, Helmut Koester, Ronald Piper, F. Neiryneck, C. M. Tuckett, D. Catchpole, C. Heil, A. Lindenmann 등 많은 학자들이 있다.

2)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궤도』, 208.

3) “Q의 대조 연구서”는 *The Critical Edition of Q. Synopsis including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ark and Thomas with English, German, and French Translations of Q and Thomas*, eds. James M. Robinson, Paul Hoffmann, and John S. Kloppenborg (Leuven, Peeters, an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0)을 말한다. 이 책에 관한 소개 논문은 James M. Robinson이 2000년 11월 18-21에 미국 테네시 주의 내슈빌에서 열렸던 SBL 연례회의에서 *The Critical Edition of Q*의 출판을 기념하여 행한 연구 발제가 있다. 후에 이 논문은 “The Critical Edition of Q and the Study of Jesus”라는 제목으로 A. Lindemann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과 더불어서 평행본문들과 비교되고 있다. 따라서 두 본문에는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Q 본문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2.1.1.Q 10:21-22(감사기도)⁴⁾

CTQU 10:21-22	CEQ 10:21-22
<p>21. ἔν ... εἶπεν· Ἐξομολογοῦμαι σοι, πάτερ, κύριε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τῆς γῆς, ὅτι ἔκρυψας ταῦτα ἀπὸ σοφῶν καὶ συνετῶν καὶ ἀπεκάλυψας αὐτὰ ἡηίοις· ναί, ὁ πατήρ, ὅτι οὕτως εὐδοκία ἐγένετο ἔμπροσθέν σου.</p> <p>22. πάντα μοι παρεδόθη ὑπὸ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καὶ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τὸν υἱὸν εἰ μὴ ὁ πατήρ, [οὐδε] τὸν πατέρα .. εἰ μὴ ὁ υἱὸς καὶ ᾧ ἐάν βούληται ὁ υἱὸς ἀποκαλύψαι.</p>	<p>21. ἔν ... εἶπεν· Ἐξομολογοῦμαι σοι, πάτερ, κύριε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τῆς γῆς, ὅτι ἔκρυψας ταῦτα ἀπὸ σοφῶν καὶ συνετῶν καὶ ἀπεκάλυψας αὐτὰ ἡηίοις· ναί ὁ πατήρ, ὅτι οὕτως εὐδοκία ἐγένετο ἔμπροσθέν σου.</p> <p>22. πάντα μοι παρεδόθη ὑπὸ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καὶ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τὸν υἱὸν εἰ μὴ ὁ πατήρ, οὐδὲ τὸν πατέρα [τις γινώσκει] εἰ μὴ ὁ υἱὸς καὶ ᾧ ἐάν βούληται ὁ υἱὸς ἀποκαλύψαι.</p>

2.1.2.Q 10:23-24(보는 눈에 대한 축복)⁵⁾

CTQU 10:23-24	CEQ 10:23-24
<p>23. μακάριοι οἱ ὀφθαλμοὶ οἱ βλέποντες ἃ βλέπετε.</p> <p>24. ἄμην γὰρ ὑμῖν ὅτι πολλοὶ προφήται καὶ βασιλεῖς [ἐπεθύμ]ησαν ἰδεῖν ἃ ὑμεῖς βλέπετε καὶ οὐκ εἶδαν, καὶ ἀκοῦσαι ἃ ἀκούετε καὶ οὐκ ἤκουσαν.</p>	<p>23. μακάριοι οἱ ὀφθαλμοὶ οἱ βλέποντες ἃ βλέπετε ..</p> <p>24.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πολλοὶ προφήται καὶ βασιλεῖς ..ησαν ἰδεῖν ἃ βλέπετε καὶ οὐκ εἶδαν, καὶ ἀκοῦσαι ἃ ἀκούετε καὶ οὐκ ἤκουσαν.</p>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27-52에 실려 있다. 필자는 로빈슨 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이 논문을 『성경원문연구』 제9호(2001년 8월호): 142-166에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다.

4) 10:21-22절과 관련하여 먼저 CTQU 21절을 보면 ναί (울습니다.) 뒤에 콤마가 있다. 이것이 원래의 것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알 수 없으나 CEQ에는 찾아 볼 수 없다. Nestle-Aland 27판에 Q와 평행된 두 본문(마 11:26; 눅 10:21) 모두에 콤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오기임에 분명하다. οὐδὲ(없다)는 C 판정을 받은 것인데 원래의 것으로 복원되었으며 A 등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판정하지 못해서 ..로 표기되어 있었던 τις γινώσκει (아는 사람)는 C 등급의 기호를 갖게 된다.

5) 10:23절에 CTQU는 ἃ βλέπετε.로 끝나는데 CEQ는 그 뒤에 마 13:16에 있는 “καὶ τὰ ὅρα ὑμῶν ὅτι ἀκούουσιν”을 D 등급으로 (..)표기한다. 10:24절에는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ἄμην(진실로)가 λέγω(내가 말한다)로 바뀌었으며 [ἐπεθύμ]ησαν(그들이 원했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C 등급이었던 [ἐπεθύμ]ησαν은 마태의 본문(마13:17)을 따랐는데 CEQ에서는 ...표시를 함으로 누가의 본문(눅 10:24)인 ἠθέλησαν 역시 같이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ὑμεῖς(너희들은)는 삭제되었다.

2.1.3.Q 11:2-4(주님의 기도)6)

CTQU 11:2-4	CEQ 11:2-4
<p>2b. <...> προσεύχεσθε· Πάτερ,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p> <p>3.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p> <p>4.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ῃ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p>	<p>2b. [[ῶταν]] προσεύχ[[η]]σθε [[λέγετε]]· Πάτερ,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p> <p>3.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p> <p>4.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ιλέταις ἡμῶν·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ῃ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p>

2.1.4.Q 11:9-13(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7)

CTQU 11:9-13	CEQ 11:9-13
<p>9. λέγω ὑμῖν, αἰτεῖτε καὶ δοθήσεται ὑμῖν, ζητεῖτε καὶ εὕρησете, κρούετε καὶ ἀνοιγήσεται ὑμῖν·</p> <p>10. πᾶς γὰρ ὁ αἰτῶν λαμβάνει καὶ ὁ ζητῶν εὕρισκει καὶ τῷ κρούοντι ἀνοιγήσεται</p> <p>11. .. τίς ἐστιν ἐξ ὑμῶν ἄνθρωπος, ὃν αἰτήσῃ ὁ υἱὸς αὐτοῦ ἄρτον, μὴ λίθον ἐπιδώσει αὐτῷ;</p> <p>12. ἢ καὶ ἰχθὺν αἰτήσῃ, μὴ ὄφιν ἐπιδώσει αὐτῷ;</p> <p>13. εἰ οὖν ὑμεῖς ποιηροὶ ὄντες οἴδατε δόματα ἀγαθὰ διδόναι τοῖς τέκνοις ὑμῶν, πόσῳ μᾶλλον ὁ πατήρ [[ὁ]] ἐξ οὐρανοῦ δώσει ἀγαθὰ τοῖς αἰτοῦσιν αὐτόν.</p>	<p>9. λέγω ὑμῖν, αἰτεῖτε καὶ δοθήσεται ὑμῖν, ζητεῖτε καὶ εὕρησете, κρούετε καὶ ἀνοιγήσεται ὑμῖν·</p> <p>10. πᾶς γὰρ ὁ αἰτῶν λαμβάνει καὶ ὁ ζητῶν εὕρισκει καὶ τῷ κρούοντι ἀνοιγήσεται</p> <p>11. .. τίς ἐστιν ἐξ ὑμῶν ἄνθρωπος, ὃν αἰτήσῃ ὁ υἱὸς αὐτοῦ ἄρτον, μὴ λίθον ἐπιδώσει αὐτῷ;</p> <p>12. ἢ καὶ ἰχθὺν αἰτήσῃ, μὴ ὄφιν ἐπιδώσει αὐτῷ;</p> <p>13. εἰ οὖν ὑμεῖς ποιηροὶ ὄντες οἴδατε δόματα ἀγαθὰ διδόναι τοῖς τέκνοις ὑμῶν, πόσῳ μᾶλλον ὁ πατήρ ἐξ οὐρανοῦ δώσει ἀγαθὰ τοῖς αἰτοῦσιν αὐτόν.</p>

2.2.Q 10:21-24; 11:2-4, 9-13의 본문 사역

그러면 위에 비교 언급된 Q 본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IQP에 의해서 확정된 CEQ에 복원된 Q 본문을 그리스어에서 우리말로 사역8)을 해 보자.

6) 11:2-4절에서 2b만이 수정되었다. <...> 으로 표시되어 마태 6:9절의 “Οὕτως”(이렇게)나 누가의 본문 ὅταν(때에)을 인식하였던 것을 누가의 본문으로 확정지어 C 등급을 주었다. 그리고 προσεύχεσθε(기도하다)의 현재형이 CEQ에서 C 등급의 가치를 두어 가정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λέγετε(너희들은 말하라)가 역시 C 등급으로 첨가되었다. 이는 마태보다는 누가의 본문을 따르고 있다.

7) 11:9-13절에서 두 본문이 거의 동일하다. 단지 13절에서 정관사 ὁ가 삭제되었다.

8) 사역을 하면서 필자가 참고한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과 『표준 새번역』이다.

2.2.1.Q 10:21-22(감사기도)

Q 10:21

ἐν [O] εἶπεν· ἔξομολογοῦμαί σοι, πάτερ, κύριε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τῆς γῆς, ὅτι ἔκρυψας ταῦτα ἀπὸ σοφῶν καὶ συνετῶν καὶ ἀπεκάλυψας αὐτὰ νηπίοις· ναὶ ὁ πατήρ, ὅτι οὕτως εὐδοκία ἐγένετο ἔμπροσθέν σου.

· ·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에게 찬양⁹⁾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여!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로부터 숨기셨고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당신 앞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¹⁰⁾

Q 10:22

πάντα μοι παρεδόθη ὑπὸ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καὶ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τὸν) υἱὸν(ν) εἰ μὴ ὁ πατήρ, (οὐδὲ) (τὸν) πατ(έ)ρ(α) [(τις)] [(γινώσκει)] εἰ μὴ ὁ υἱὸς καὶ ᾧ ἐὰν βούληται ὁ υἱὸς ἀποκαλύψαι.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게 맡겨졌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고자 원하는 자 이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¹¹⁾

2.2.2.Q 10:23-24(보는 눈에 대한 축복)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Q이지만, 편의상 Q가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자는 누가복음의 한글 번역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독자들은 마태복음도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9) 예수의 감사기도를 찬양으로 번역한 것은, 원래 이 기도가 초기 교회의 찬양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김광수, 『마가 마태 누가의 예수 이야기』(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524.

10) 『개역 개정판』 눅 10:21 -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표준 새번역』 눅 10:21 -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11) 『개역 개정판』 눅 10:22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표준 새번역』 눅 10:22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Q 10:23

μακάριοι [οί] ὀφθαλμοὶ ὅτι βλέπο[ντες ἢ βλέπετε].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들이 복이 있다.”¹²⁾

Q 10:24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πολλοὶ προφήται καὶ [βασιλεῖς] [Ο]ῆσαν ἰδεῖν ἃ βλέπετε καὶ οὐκ εἶδαν, καὶ ἀκοῦσαι ἃ ἀκούετε καὶ οὐκ ἤκουσαν.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¹³⁾

2.2.3.Q 11:2-4(주님의 기도)

Q 11:2

[[ὅταν]] προσεύχ [[η]]σθε [[λέγετε]]· πάτερ, ἁ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¹⁴⁾

Q 11:3

τὸν ἄρτον ἡμῶν τὸν ἐπιούσιον δ(ὸς) ἡμῖν (σ)ήμερο(ν)·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¹⁵⁾

Q 11:4

12) 『개역 개정판』 눅 10:23 -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표준 새번역』 눅 10: 23 -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13) 『개역 개정판』 눅 10:24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표준 새번역』 눅 10:24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14) 『개역 개정판』 눅 11:2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표준 새번역』 눅 11:2 -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15) 『개역 개정판』 눅 11:3 -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표준 새번역』 눅 11:3 -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καὶ ἄφες ἡμῖν τὰ (ὀφειλήματα) ἡμῶν, (ὡς) καὶ (ἡμεῖς) ἀφ(ήκα)μεν (τοῖς) ὀφείλ(εταις) ἡμ(ῶν)· καὶ μὴ εἰσενέγκης ἡμᾶς εἰς πειρασμόν.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빛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같이 우리의 빛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¹⁶⁾

2.2.4.Q 11:9-13(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Q 11:9

[λέγω ὑμῖν,] αἰτεῖτε καὶ δοθήσεται ὑμῖν, ζητεῖτε καὶ εὕρησετε, κρούετε καὶ ἀνοιγήσεται ὑμῖν·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¹⁷⁾

Q 11:10

πᾶς γὰρ ὁ αἰτῶν λαμβάνει καὶ ὁ ζητῶν εὕρισκει καὶ τῷ κρούοντι ἀνοιγήσεται.

“구하는 모든 자가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다.”¹⁸⁾

Q 11:11

τί(ς ἐστιν) ἐξ ὑμῶν (ἄνθρωπο)(ς, ὃν) αἰτήσῃ ὁ υἱὸς (αὐτοῦ) (ἄρτ)ου, (μὴ) (λίθου) ἐπιδώσῃ αὐτῷ;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이 떡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¹⁹⁾

16) 『개역 개정판』 눅 11:4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표준 새번역』 눅 11:4 -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17) 『개역 개정판』 눅 11:9 -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표준 새번역』 눅 11:9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8) 『개역 개정판』 눅 11:10 -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표준 새번역』 눅 11:10 -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9) 『개역 개정판』 눅 11:11 -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표준 새번역』 눅 11:11 -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되어 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Q 11:12

ἦ καὶ ἰχθὺν αἰτήσῃ, (μὴ) ὄφιν ἐπιδώσει αὐτῷ;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²⁰⁾

Q 11:13

εἰ οὖν ὑμεῖς ποιηροὶ ὄντες οἴδατε δόματα ἀγαθὰ διδόναι τοῖς τέκνοις ὑμῶν, πόσω μάλλον ὁ πατήρ ἐ[ξ] οὐρανο[ῦ] δώσει (ἀγαθὰ) τοῖς αἰτοῦσιν αὐτόν.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²¹⁾

2.3.Q 10:21-24; 11:2-4, 9-13의 본문 구조

Q 10:21-24, 11:2-4, 9-13은 크게 보면 두 분으로 나누어진다.²²⁾ Q 10:21-24절과 Q 11:2-13절까지이다. 왜냐하면 두 그룹의 주제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첫째 단락은 21절에 나타나 있는 ἀπέκρυψας(계시하다)라는 단어가 22절에 같은 단어 ἀπέκρυψας로 반복되어 나온다. 계시를 받는 대상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실제 눈이 본다는 단어 βλέπετε가 23절과 24절에 나온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계시를 보고 듣는다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προσεύχησθε(기도하다)와 αἰτεῖτε(αἰτούσαι(구하다)가 나온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두 본문은 서로 연결점이 있다. Q 10:21-22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다.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를 보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계시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20) 『개역 개정판』 눅 11:12 -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표준 새번역』 눅 11:12 -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21) 『개역 개정판』 눅 11:13 -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표준 새번역』 눅 11:13 -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22) 본문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a. 10:21-22: 기도의 전제로서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계시
- a'. 10:23-24: 기도의 출발로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계시의 축복
- b. 11:2-4: 기도의 내용으로 아버지 계시와 아버지의 뜻
- b'. 11:9-13 : 기도에 대한 권면 아버지 계시와 아버지의 뜻

의 신학은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신학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전제는 바로 계시이기 때문이다. Q 편집자는 이 두 본문을 연결시켜주는 단어로 *πάτερ*(아버지)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10장 21절과 11장 2절에 첫머리에 등장함으로써 두 본문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Q 10:21-22절은 주기도문의 서언으로 보아야 하며 10:23-24절은 서언에 대해 추가로 강조된 말씀이 된다. 즉 Q 10:23-24절은 확대된 서론으로 보아야 된다. 11:2-4는 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본론이며 예수의 말씀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11:9-13은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주제가 다시 부상된다. 따라서 이 두 본문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의 말씀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원래 Q 본문은 기도 구절을 한꺼번에 모아놓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3.공통자료로서 Q 10:21-24, 11:2-4, 9-13의 위치

3.1.마태복음의 본문 위치

3.1.1.Q 10:21-22와 마 11:25-27

본문의 위치는 마태복음에서 11장 후반부이다. 각주에 제시된 데이비스와 엘리슨의 마태복음 구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²³⁾ 11장은 10장과 13장의 강화 사이에 위치한다. 11장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가 대답하는 본문(11:2-19)과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본문(11:20-24)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기도(11:25-27)가 나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이야기(11:28-30)로 이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초청(11:28-30)은 누가에 나오지 않는 마태의 삼입 구절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12장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름(12:1-8)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침(12:9-21)과 예수의 바알세불 논쟁(12:22-37)과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38-45), 마지막으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12:46-50)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나온다.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후에(10:26, 31) 제자들이 전도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과 연결되

23) W.D. Davies and Dale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88), 58-72.

어 본문이 위치한다. 마태는 전도에 실망한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한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다.²⁴⁾ 그러므로 마태에서 본문은 주님께서 위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1.2.Q 10:23-24와 마 13:16-17

본문의 위치는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 13장에 속해 있다. 4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와 함께(13:1-9)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13:10-13) 이사야의 예언(13:14-15)에 이어서 본문이 등장한다(13:16-17). 그 다음에 비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붙는다(13:18-23). 그 후에 씨 뿌리는 비유와 유사한 가라지의 비유를 계속 첨가한다(13:24-30). 몇 개의 비유들(13:31-52)을 말씀하신 이후에, 결국 예수는 고향에서 배척된다(13:53-58).

이렇듯 마태복음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전도와 관련하여 회개치 않음과 배척의 모티브가 강하게 일어난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말씀과 연결하여 듣는 자와 보는 자에 대한 축복을 선포함으로 계속적으로 위로하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밀 모티브를 강조하는 데 기초를 이룬다.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13:14).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알려졌다. 즉 악한 세대는 완악하게 되고(13:15) 선한 제자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13:23). 마태는 본문을 통하여 전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소수에게 있음을 본문을 삽입함으로써 말하려 한다.

3.1.3.Q 11:2-4와 마 6:5-15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산상보훈 안에 위치한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는 팔복²⁶⁾을 선포하고 난 후(5:1-12)에, 무리들의 신분을 정의(5:13-16)하고 울

24) Ulrich Luz, *Matthew 8-20. Hermeneia -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155-176.

25) 마태복음에서 ‘반대와 충성’ 모티브는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혹은 예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2), 387-417과 Ulrich Luz, 247을 참고하라.

26) 마태의 복 선언은 Q에서 유래한 것인데, 누가의 복 선언인 네 가지 말씀은 마태에서 팔복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간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복 선언이 추가되어 9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12-13절에 언급된 복 선언이 10절의 복 선언과 같이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

법에 대하여 가르친다(5:17-48). 그리고 잘못 행해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를 수정하면서(구제, 기도, 금식, 제물사용, 비판) 아버지께 간구하는 참된 자세와(7:7-12)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7:13-14). 이에 대하여 무리들은 놀란다(7:28-29).

마태는 Q 본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함께 확대한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설정(5:5-8)하고 Q 본문을 삽입한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많은 부분을 수정한다. 마태 자신이 좋아하는 용어를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태는 Q의 주기도문에 “이렇게” 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기도의 한 모델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보인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단어의 첨가로 아버지의 신격을 더욱 부과했으며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강화하려 했다. 마태는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첨가한다. Q 본문은 4절에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끝이 나지만, 마태는 여기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첨가한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예수의 로기온(6:14-15)을 덧붙임으로 이 기도문에서 용서를 강조한다.

3.1.4.Q 11:9-13과 마 7:7-11

Q의 본문이 마태에서 서로 구분되는 단락이 되었다. Q는 기도의 주제로 연결되었으나 마태는 자기 자신의 자료를 첨가하여 예수 말씀어록을 재구성하였다. 산상보훈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마 5:1-20절은 서문으로서 서언(5:1-2)에 이어 축복 선언이 나오고(5:3-12),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언급(5:13-16) 및 주체 선포가 나온다(5:17-20). 마 5:21-48은 5:20절의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의는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마 6:1-18에서 반제의 형식으로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마 6:19-7:27은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나온다.²⁷⁾ 따라서 마태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의에 관한 말씀 중에서 하나를 언급함으로써 Q 본문의 의미를 약화시킨다.

3.2.누가복음의 본문 위치

기 때문에, 흔히 이를 하나로 보아서 ‘팔복’이라 부른다.

27) Davies and Allison, 625-731; 박수암, 『산상보훈』(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84-85.

3.2.1.Q 10:21-22와 눅 10:21-22

누가복음에서의 본문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9:51) 가는 도상에 있다.²⁸⁾ 예수는 70인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동네마다 들씩 파송한다(10:1-16). 그 70인의 제자들은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한다(10:17-20). 그 후에 본문이 위치한다(10:21-22). 그리고 보는 자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이어진다(11:23-24). 그 후 한 율법사의 영생에 관한 물음과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한 후에(10:25-37)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다(10:38-42).

누가복음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더욱 드러난다.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 돌아왔고(10:17) 예수가 그들에게 “기뻐하라”(10:20)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도 “기뻐하고 있다”(10:21). 이 기뻐하다는 용어는 누가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와 함께 Q 본문에 첨가된 부분이다. 누가는 성령과 기쁨을 첨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에서 예수는 정말 기뻐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누가의 본문은 마태 본문과는 대조적이다.

3.2.2.Q 10:23-24와 눅 10:23-24

누가복음은 마태의 상황과는 달리 70(72)인의 성공적인 전도사역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그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린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한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여기에서 이러한 축복이 열두 제자들에게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에게 돌이켜 사사로이” 선포된 말씀이다. 이는 열두 명의 제자를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3.Q 11:2-4와 눅 11:2-4

누가복음은 본문을 평지 설교에 넣지 않고 여행 중에 한 제자의 간청에

28) 박광일, “누가복음의 ‘여행사회’(9:51-19:44)에 나타난 누가의 신학적 의도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2000); 김득중, 『누가복음 I』.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5. 누가복음 이해에 있어서 가스끄(W. Gasque)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최근의 비평적 연구가 얻어낸 일차적인 소득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연구해야 될 한 작품의 두 권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통일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양자 사이의 구조에서 오는 유사성으로 입증된다. 누가-사도행전의 통일성 문제에 관해서 J. Verheyden (ed.), *The Unity of Luke-Acts*. BETHL CXLII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9)를 참고하라. 특히 우리는 사도행전의 구조가 선교여행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것을 요청받는다. 참고 소기천,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선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225.

의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11:1).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간청 속에서 이 기도문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으로 누가는 서술한다.

3.2.4.Q 11:9-13과 눅 11:9-13

누가는 본문 앞에 ‘간청하는 친구’에 대한 자신의 자료(11:5-8)를 첨가함으로써 기도의 강청함에 대한 강조를 한다. 이는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3.3.Q의 본문 위치²⁹⁾

Q는 세례요한의 등장과 예수가 수세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을 서론으로 시작한다. 본론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축복의 선포와 더불어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에 의해서 재해석된다. 예수의 전도활동은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를 필두로 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두루 여행을 다닌다.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 후 적대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된다. 그 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반복과 거듭된 적대자들과의 논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즉 인자의 날에 대한 예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본문은 Q에서 예수의 말씀전파의 활동인 전도와 전도 시에 나타나는 적대자들과의 논쟁 사이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Q 공동체가 얼마나 본문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본문이 전도 여행

29) 최근에 세계성서학회(SBL)에서 Q를 반대하는 논문이 발표된 경우가 있었지만,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대표적인 학자인 Mark Goodacre, *The Case against Q*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2)를 참고하라. 그러나 대다수의 복음서 연구 학자들이 마태와 누가의 공통자료인 Q를 인정하고 있다. Q의 전체구조는 다음과 같다.

- 1) 서론: a. 세례요한 (3:2-22)
 - b. 광야에서 시험받으심(4:1-16)
- 2) 본론: a.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I(6:20-7:1)
 - b. 예수의 전도 활동(7:1-10:16)
 - c. 예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I (10:21-11:13)
 - d. 적대자들과의 논쟁 I (11:14-12:12)
 - a'.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II (12:22-13:35)
 - d'. 적대자들과의 논쟁 II (14:5-14:23)
 - a''.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III (14:26-16:13)
- 3) 결론: 인자의 날에 대하여(17:20-22:30)

시에 주어지는 제자의 고난과 역경과 실망과 좌절을 이겨내는 비결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이 본문을 통하여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Q의 기도 신학

Q 10:21-24; 11:2-4, 9-13에는 중요한 Q의 신학이 깃들고 있다. 신론, 기독교론, 하나님의 나라, 기도, 양식, 용서, 시험에 대한 7개 정도의 Q의 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신학이 Q 전체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다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4.1. 아버지 신론

Q의 아버지 개념³⁰⁾은 구약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³¹⁾ Q 10:21-24; 11:2-4, 9-13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되고 이 개념은 본문을 유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10:21).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며(11:13),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다(10:2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다(10:22). 예수의 아버지는 곧 신자의 아버지가 된다(11:2).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친다. 이 아버지는 구하는 신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은 Q 전체 본문에 확대되어 나타난다. Q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본다.

① 아버지의 존재와 성품

30) Geza Vermes, *The Religion of Jesus the Jew*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52-183.

31) H. Conzelmann, 김철손, 안병무, 박창환 역, 『신약성서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23. 특히 콘첼만은 “아버지”란 말은 힘의 요소와 보호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의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과의 관련에서 “아버지”라고 불린다(신 14:1)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시 89:27). 필로는 이 칭호를 우주론적이고 계보적인 의미에서 사용한다. 예수는 이 칭호에 의해 그의 특별한 파견의식을 표현하며 또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여길 수 있음을 알려 준다.

하늘에 계심	11:13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
하늘과 땅의 주님	10:21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
어린아이에게 나타냄 (아버지의 주권)	10:21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여!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로부터 숨기셨고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당신 앞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②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10:21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여!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로부터 숨기셨고 그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당신 앞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신다.	10:22 아버지 이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고자 원하는 자 이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위임	10:22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게 맡겨졌으니,

③ 신자와 관련하여

신자의 아버지	6:36 너희의 아버지께서; 12:30 너희 아버지는; 11:2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라]]. 아버지
필요를 아신다.	12:30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11:13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아버지를 안다 (아들이 계시할 때)	10:22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고자 원하는 자 이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Q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아버지는 구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난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는 아버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멀리하신다(잠 26:12). 어린 아이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시 8:2).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아버지는 자비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Q의 신앙고백이다. 아버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신다. 신자들은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가르치고 촉구한다. 이 아버지는 신자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4.2. 아들 기록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은 동방종교³²⁾에 헬레니즘³³⁾ 그리고 유대교³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지만, Q는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자신의 육성을 보존한다. Q는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도한다.

Q에서 아들(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 시: 3:21-22 예수가 세례를 받게 되어··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분 위에 강림하·· 그리고 하늘로·· 음성.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가 기뻐하노라.

② 첫 번째 마귀의 시험: 4: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③ 두 번째 마귀의 시험: 4:9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④ 예수의 감사기도 중에서: 10:22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게 맡겨졌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고자 원하는 자 이

32) O. Cullman, 김근수 옮김, 『신약의 기록론』(서울: 나단출판사, 1988), 412-413. 베틀(G. P. Wetter)는 그의 저서 『헬라주의에서의 “신의 아들들”에 관한 비교 종교연구』에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주장한다. 바로들은 모두가 태양신의 아들들이라 여겨졌다. 신약시대의 황제들에게도 신의 아들이란 칭호가 주어졌다.

33) 위의 책, 413-414. 헬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지배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신적 힘을 소유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타인들에 의해서 “신의 아들”로 칭해지거나 혹은 스스로 그 칭호를 갖거나 했다.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의 아들”로 행해진다. 볼트만은 이러한 개념이 예수에게 주어졌던 개념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신과 인간 사이의 구별이 모호한 헬라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선한 인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한 용어가 사용된 근거는 인간은 신이 육체로 내려온 것이라는 고대 헬라인들의 믿음이었다. 고대 헬라인들은 왕, 철학자, 사제, 의인들이 그들의 신적인 선조들 때문에 그러한 신분이 된다고 믿었다. 참고, L. Richardson, 이한수 옮김, 『신약신학 개론』(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190.

34) 위의 책, 414-418.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진다. 왕들이 그 칭호를 지니며, 하나님께서 특수한 사명을 지닌 품격들, 예컨대, 천사들, 아마도 메시아 역시 그렇게 칭해진다. 그러나 어느 고대 문서에서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지 않는다. 때문에 달만과 보우셀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에 대한 지칭을 단호히 거부했으며 미카엘리스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유대적인 대망과 왕의 관념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약과 유대적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떤 특수한 능력의 은사에 의해서거나, 신성적 입신에 의한 하나님과의 어떤 본질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요, 어떤 특수한 사명의 실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의 참여를 위한 선택이라는 관념에 의해,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엄격하게 순종한다는 관념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의하여 예수에게 양도되었음을 의미하는 παραδιδώμι는 특히 선생이 학생에게 전통을 물려주는 것을 표현한다. 이 말은 권력이나 권위를 양도하는 데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니엘 7:13-14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예수가 아버지의 권한을 양도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³⁵⁾

Q 본문에서 알다는 γινώσκω라는 단어이다. 그러나 마태는 ἐπιγινώσκω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말은 동의어이지만 Q는 ἐπιγινώσκω라는 단어의 뜻을 피하려 한다. 여기에서 지식에 대한 평행은 헬라적 병행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썸족어 스타일의 관점에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썸족어는 상호 대명사가 없기에 본문과 같이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서술한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언급한 구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삼하 7:20; 왕상 8:43; 시 139:1; 암 3:2; 렘 1:5; 12:3).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식도 언급하며(수 24:16; 삼상 3:7; 왕상 8:43; 시 36:10[91:14], 사 52:6; 렘 9:24; 31:34; 호 2:20; 4:1; 6:6)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 지식에 대한 구절도 있다(출 33:12-13).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모스 3장 2절이나 예레미야 1장 5절과 같은 구절에 나오는 선택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즉 아버지에 의한 선택과 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중시한다.³⁶⁾

4.3. 하나님의 나라

4.3.1.Q 11:2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기도문에 나타난 중심 주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

Q에 나오는 주의 기도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버지와 관계된 기원으로 11:2절과 Q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11:3-4절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관계된 기원은 공동체 기원의 뿌리가 된다. 주의 기도문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기도는 두 가지이다. 하나님

35) I. H. Marshall, 『누가복음 II』, 국제성서주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71. 이 견해에 의하면 아들의 권한이 강조된다.

36) 위의 책, 71-72. 이는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와는 다른 아들의 개념을 보여 준다.

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서로 다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임한다’라는 단어 ἐλθετω는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단회적이고도 유일회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³⁷⁾

나라를 지칭하는 βασιλεία는 영토 혹은 공간을 나타내는 정적인 개념이기 보다는 ‘통치’나 ‘지배’를 뜻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³⁸⁾ 여기에는 유대적인 용어가 반영되어 있다. 카데쉬도 그런 간구를 포함하면서 “그가 너의 생전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언제나 그리고 속히 그 나라를 이루실지어다”라고 덧붙인다.³⁹⁾ 외형적으로는 두 기도가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예수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으로 차이를 보여 준다.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를 대망한다.

4.3.2. Q의 하나님 나라

Q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개념이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개념과 소유적 개념이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개념이다. 넷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나타나는 선교적 개념이요 다섯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이다.

37) 박수암, 같은 책, 154.

38) 김득중, 『누가복음 II』,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66.

39) 최갑중, 『주기도문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5), 125-129.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문은 ① 쉘마 ② 터필라 ③ 카데쉬 등과 같은 기도문이 있었다. 첫째, 쉘마이다. 고대 여러 문헌에 따르면 예수가 오시기 이전부터 열두 살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이 일종의 신앙 고백문으로 쉘마를 하루에 2번씩 의무적으로 이행했다. 그 내용은 민 15:37-41, 신 4:9-11, 11:13-21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쉘마는 유일 신론에 대한 진술과 유대주의 최고의 신앙고백으로 이스라엘 종교의 초석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집회를 시작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사용했다. 둘째, 터필라 혹은 Shmeoneth이다. 18기도문이라 부르기도 하는 이 기도문은 이름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중요한 기도문으로 공식적인 안식일 회당 예배 시와 개인 기도시간에 사용된 축복기도문이다. 셋째, 카데쉬이다. 회당예배에서 설교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암송하는 공동기도문이다. 이러한 기도문이 주기도문과의 유사점이 있다. 첫째 쉘마의 경우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점과 터필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달라는 점이 그렇다. 또한 카데쉬에서는 “이름이 거룩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문구가 주기도문과 일치한다. 참고. 이보민,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성”(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90), 9-10.

① 시간적 개념

실현된 종말	11:20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현재적 종말	6:20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임박한 종말	10:9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임박한 종말	16:16 … 그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었고
미래적 종말	13:2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것이지만), 너희는 좀더 바깥의 어두움에 내 쫓기게 될 것이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Q 10:9는 예수가 제자들을 선교 파송 시에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메시지이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Q에 나타나는 임박한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다. ‘가까이 왔다’의 동사 ‘ἐγγίζω’라는 동사는 70인역에서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당도하다, 미치다, 이르다”(요나 3:6)라는 뜻도 있다. 문제는 “가까이 다가 왔다”는 완료형이 임박한 지경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도달했음을 뜻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아주 임박하게 다가옴을 의미한다.

이 동사의 다른 시제들에 있어서도 그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있다. 다가옴과 도달함을 구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임박은 Q 11:20에 “그의 나라가 임했다”(ἐφθασεν ἡ βασιλεία)는 표현과 더불어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11:20에서의 ἐφθασεν은 “-앞에 오다. 앞서오다”라는 뜻도 있고(살전 4:15) “방금 도착했다” 곧 “도래하다, 오다”(비교 롬 9:31; 고후 10:14; 빌 3:16; 살전 2:16)라는 뜻도 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 “실현된 종말론”의 중요한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Q 공동체는 예수의 축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이해한다.

임박한 종말에 관련하여 우리는 Q 16:16에 있는 “…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었고”를 기억해야 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천국은 폭력적으로 스스로 열린다.” 혹은 “하나님은 천국을 강권적으로 여신다.”로 번역할 수 있다. “침노하는 자”들은 폭력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돌진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뿐만은 ‘임박해 오는 천국을 향하여 돌진해 오는 사람들’로 이해했다.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생업과 가족까지 버려 두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다. 천국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 천국은 그 스스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강권적으

로 열리는 것이고, 임박하게 다가오는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합당한 매우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⁴⁰⁾

그렇지만 6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소유를 선포한다. 이와는 달리, 13장 28절(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앓을 것이지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미래적인 종말이 Q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의인들이 참석하게 되는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미래적 종말론은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임박해 오는 종말론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자 개념과 더불어 나타나는 미래적인 종말개념이 나타난다. 우리는 Q에 나타나는 인자 사상을 묵시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⁴¹⁾ 지혜전통에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Q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저 시간 너머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고 현재 시간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3:28은 가까운 미래의 종말 사상을 내포한다.

이렇듯 Q는 미래적인 종말보다는 실현되고 임박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물론 여기에 미래적인 종말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나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 즉 임박한 미래를 나타낸다.⁴²⁾ 따라서 주의 기도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적인 종말보다 실현되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함을 위한 기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② 공간적 개념

너희에게	11:20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에게	10:9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가난한 자에게	6:20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 소유	7: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들이 낳은 자들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우리는 위의 두 구절을 위해서 시간적인 이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공간적인 개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너희에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

40) 조경철, 『마태복음 I』.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61.

41)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제도』, 165-202.

42)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양면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바르다. 참고, 김경진, 『하나님 나라와 윤리』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 2003), 15-34.

로서 선교에 의하여 공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11:20에서는 축귀와 관련된 구절로서 하나님의 왕적인 구속적 능력이 청중들에게 가까이 도래했고 그것을 그들이 포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는 Q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6:20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구절은 7:28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에서 ‘그’는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 이는 마치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뜻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μικρότερος: 최상급)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왕국에 있는 장소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⁴³⁾ 따라서 이 구절을 소유적인 개념의 이해를 요구한다.

③ 통치적 개념

하나님 나라 기원	11:2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축귀	11:20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적인 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2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며, 11:20에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④ 선교적 개념

겨자씨 비유	13:18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고 또한 내가 무엇에다가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
누룩 비유	13:20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까?

13:18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를 뜰에 심은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 비유는 “성장”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마태는 오히려 성장보다는 “씨”의 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다. 마태는 씨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Q에서는 그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Q가 이 비유를 통해서 대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불가피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F. Bovon, *Luke 1. Hermeneia -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284; I. H. Marshall, 『누가복음 I』, 국제성서주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393.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지만(13:23-24),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것이다(13:29).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13:20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밀가루가 부풀 때까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들고 있다. 누룩(ζύμη)은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이다. 이것이 작용하는 것을 인간의 눈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은 밀가루 서 말을 부풀게 한다(ἄλευρον). ‘서 말’에서 ‘말’(σάτα)은 13.13리터에 해당되는 아람어를 소리대로 음역한 것이다. 이것의 분량은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영향력이 ‘말’로 표현되어 있다.⁴⁵⁾

이와 같이 Q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선교의 개념에서 이해된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에게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해 준다.

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주의 기도문에서 먼저 기도	11:2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12:31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그가 계시하는 자에게 이미 왔으며 현재 오고 있고 앞으로 임박할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침노를 당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의 제목이다(11:2).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 이는 양식을 위한 간구보다 먼저 해야 할 간구이다.

이는 12:31에 의해서 더욱 명확해 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라는 내용은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1)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구하고 물질적 관심보다 그 나라의 도래를 재촉하라는 의미와 (2) 물질적 이익보다는 그 나라의 (영적) 축복을 구하라는 의미와 (3)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키라는 의미와 (4) 주의 기도로 기도하라는 의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⁶⁾ 하

44) 김득중, 『복음서의 비유들』(서울: 권콜디아서, 1990), 102-103.

45) I. H. Marshall, 『누가복음 II』. 국제성서주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247-248.

46) 위의 책, 203. 김광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는 의미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뜻을 가지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김광수, 『마가 마태 누가의 예수 이야기』, 533을 참고하라.

나눔 나라를 위한 간구는 이러한 네 가지를 다 포함한다.

4.4.기도의 신학

본문은 Q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예수 말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급한 기도의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도가 가능한지와,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4.4.1.아버지와 아들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부름	11:2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께 간구	11:11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이 떡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11:12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11: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1:10 구하는 모든 자가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11:2-4; 11:9-13.
좋은 것을 주심	11: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1:10 구하는 모든 자가 받고, 찾는 자가 발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다.
이방인이 아들에게 간구	7:3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왔다. 그가 간청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어야 하느냐?”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11:2). Q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자 그들의 아버지이다.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Q 공동체와 아버지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아버지의 아들은 친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11:2-4)준다. 기도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계시에서 시작하지만(10:21-22) 기도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계시를 확대한다(11:9-13).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Q 공동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 기도가 시작된다. 이러한 관계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다. 아버지는 세상의 악한 자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자도 자식에

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들들(Q 공동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11:12-13).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아들-공동체의 관계적 개념은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개념과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Q는 7:3에서 한 백부장이 예수께 하인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건을 보도한다.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7:1).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헤롯의 군대가 주둔한 곳으로, 백부장은 이방인이다.⁴⁷⁾

이처럼 Q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께 간청(기도)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기도가 열려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오히려 백부장을 칭찬하여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확신하는 공동체였다.

4.4.2.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위한 기도	11:2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12:31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된 공동체가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더 확대해 본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이름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단순한 명칭으로 사용되기보다 그 사람의 순수한 특성이나 지위 등을 표현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떤 중요한 점에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새 이름을 받을 정도로 분명했다.⁴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제3인칭 단수 단순과거 명령형 수동태로 되어있다. 박수암은 이것이 신적 수동태(divine passive)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낸다고 간주한다. 특히 마태에서 이러한 문체가 흔히 나타난다. 박수암은 유대인의 신자를 의식한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꺼려하여 신적인 수동태를 사용했음을 주장한다.⁴⁹⁾ 거룩하게 하다

47) 조경철, 같은 책, 363-364. 헤롯 왕 때부터 갈리나나 게르만 사람과 같은 외국 용병을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48) W. Hendrikson, 김풍만 역, 『마태복음(상)』(서울: 신광문화사, 1983), 491.

49) 박수암, 같은 책, 152.

는 단순과거 명령형으로 유일회적,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달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는 표현이다.

4.4.3.공동체와 관련하여

주의 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 1인칭 복수가 여기에서 계속 주어와 여격과 소유격으로 나온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Q가 공동체 의식이 뛰어났으며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던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와 관련된 기도는 양식과 용서와 시험이다. 우리는 Q에서 양식과 용서와 시험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 주의 기도문을 확대 이해하고자 한다.

양식	11:3 우리의 하루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용서	11:4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빛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같이 우리의 빛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	11:4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① 양식을 위한 기도

Q는 먹을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난다(12:24). 그 분은 까마귀를 먹이시고 이방인을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먹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말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12:29). 먹는 것은 “목숨을 위해서”(12:22) 있는 것인데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12:23). 예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12:30)라고 가르친다. 그저 아들은 아버지께 기도하면 먹을 것을 얻는다.

Q는 양식을 위해서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ἄρτος는 ‘실존을 위해 필요한 빵’을 의미한다. 때문에 하루의 양식은 구약성서적인 만나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출 16:18, 잠 30:8).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루를 뜻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하루를 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빛하에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Q 공동체에게 있어서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다. 바로 오늘 하루만을 위한 양식이다. 그리고 이 양식은 우리를 위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 선교하는 Q 공동체를 위한 양식이다.

② 용서를 위한 기도

Q에서 용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만일 형제가 너에게 하루에 7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어라”(17:4). Q에서의 용서의 개념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는 자비의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는 관계적 개념이다. 그러나 무작정 죄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용서는 “만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만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라”(17:3)라는 뜻의 용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작정 용서해 주는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였을 때의 용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기도문에서 용서는 종교적인 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데, 그런 점에서 헬라어는 ὀφειλημα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죄보다는 빛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빛은 인간관계의 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한 것처럼”이라는 가르침은 Q의 용서의 신학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빛을 회개함으로 용서하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빛(죄)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Q가 주의 기도문을 더 잘 보존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

③ 시험을 위한 기도

‘시험들다’라는 말은 시험에 굴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하여 종말론적인 환난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Q에서의 시험은 예수의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기억하게 한다. Q 공동체는 예수의 시험승리 방식으로 시험을 이길 것을 촉구하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 빠져드는 상태로 이끌지 말 것을 기도한다.

5.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Q 10:21-24; 11:2-4, 9-13을 마태와 누가의 본문과 비교하면서 Q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았다.

Q는 주의 기도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학 속에서 출발하였음을 말

해 주고 있다. Q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Q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아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말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Q 공동체는 자신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들의 개념은 영지주의 것과는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학은 Q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Q 공동체는 예수의 아버지 개념을 전승하였고 아버지를 계시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아버지와 아들로서의 Q공동체)를 형성한다.

Q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핵심의 신학으로 여긴다. 예수가 가르쳐 준 주의 기도문에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Q 전체에 놓여 있으며 이 개념은 종말론과 관련하여 실현된 종말과 임박한 종말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목시적인 종말의 개념이 아닌 현재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유대주의를 넘어선 이방을 향한 선교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의 첫 제목이며 먼저 기도해야 할 주제이다.

Q 공동체가 지닌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은 그들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의 가족으로 새로운 새 시대의 가족 개념을 재구성해 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

임박한 종말론을 소유한 Q 공동체는 종말론적 기대와 함께 하루하루의 양식에 필요를 느끼고 살아가는 가난한 공동체이다. 그러나 Q는 Q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의 복된 사람임을 항상 상기 시켜 주었고 먹을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

Q는 Q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작정의 용서가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로서 신앙공동체의 한 차원 높은 규율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Q 공동체에게 Q는 시험에 이끌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함으로써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선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복돋아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Prayers of Q 10:21-24; 11:2-4, 9-13
 - Focused on *the Critical Text of Q Unformatted* and
the Critical Edition of Q -

Ky-Chun So

A number of scholars simply presume the presence of the prayers in Q, as can be seen from study on the position variant. Those who give reasons for their presence in Q most frequently offer as reasons the shared vocabulary and structure and the fact that the prayer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Q's other material on prayer, Q 10:21-24; 11:2-4, 9-13. In addition to this thematic association with prayer material, I also associate it with Q's sapiential character and note its lack of polemic. My demonstration of the coherence of the prayers with other Q material is confirming evidence for the presence of the prayers in Q.

Claims that the present formulations of the prayers derive from liturgical usage or from a prayer given by the historical Jesus rather than from a common written source do not of themselves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Q included a written version of the prayer. The close similarity of wording and structure of the prayers in the Gospel of Matthew and the Gospel of Luke allows the variations to be easily explained on the basis of the redactional activity of the evangelists. The shared structure and wording, as becomes clear in the subsequent analysis, indicates that one has to do with the same prayer in both Matthew and Luke.

The Lord's Prayer (Q 11:2b-4) and its interpretation (Q 11:9-13) are in Matthew in the same sequence as in Luke, though in Matthew they are held still further apart (Matt 6:9b-13 and Matt 7:7-11), largely as the result of other intervening interpolations into the Sermon on the Mount. Thus the Lord's Prayer is in a (secondary) Q context in Matthew as well as in Luke.

The assumption that the Matthean and Lucan communities have

influenced the wording has often taken the form of assuming that glosses derived from each community's usage had already worked their way into the copies in the evangelists' respective communities; this assumption can be coordinat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Lord's Prayer was in Q.